

국내 동물질병 발생동향 및 특성 고찰

-최근 4년간 전국 병성감정 결과를 중심으로-

이명헌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
수의학박사
vetlee@korea.kr



회차	집필자	게재예정호 (원고송부일자)	투고내용
1	이명헌	10월호 (9월 20일)	〈들어가는 말〉 병성감정 개요 및 최근 4년간 결과분석
2	이명헌	11월호 (10월 20일)	〈본론〉 주요 축종별 질병 발생동향 1. 소 질병
3	이명헌	12월호 (11월 20일)	주요 축종별 질병 발생동향 2. 돼지 질병
4	권용국	15년 1월호 (12월 20일)	주요 축종별 질병 발생동향 3. 조류(기금 및 야생조류)
5	이명헌	15년 2월호 (15년 1월 20일)	주요 축종별 질병 발생동향 4. 반려동물 및 기타동물
6	이명헌	15년 3월호 (15년 2월 20일)	〈맺는 말〉 시사점과 병성감정 효율화를 위한 제언

들어가는 말

주지하는 대로 동물질병은 숙주, 사양환경 및 병인체 사이에 작용하는 여러가지 요인과 이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발생양상을 보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동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신종 질병들은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미 잘 알려진 고전적인 질병이라도 임상증상, 전파속도, 폐사율 등이 기존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이른바 새로운 유행형 또한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질병 발생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효한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축산현장의 상황을 온전하게 반영하는 과학적인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동물질병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수립에 기여하고자 최근 4년간 전국 병성감정 실적을 바탕으로 주요 축종별 질병발생 양상을 분석함과 동시에 그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 동물질병 병성감정 개요

병성감정은 죽은 가축이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 병리검사, 혈청검사 등의 방법으로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1조 및 12조에서는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또는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자치

〈기 고 순 서〉

■ 들어가는 말

- 동물질병 병성감정 개요 및 최근 4년간 실적

■ 본론

- 주요 축종별 질병발생 동향
 - I. 소 질병
 - II. 돼지 질병
 - III. 조류(기금 및 야생조류)질병
 - IV. 반려동물 및 기타동물

■ 맺는 말

- 시사점과 병성감정 효율화를 위한 제언

단체장은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가축방역기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속된 가축방역기관(시도 가축방역기관) 및 검역본부장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대학 또는 민간병성감정기관) 등 전국에 약 64개소의 병성감정실시기관이 운영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동물질병 병성감정 실시기관 현황('14년 7월 1일 기준)

국립 가축방역기관	지방 가축방역기관	대학	민간기관	계
1개소	43개소	10개소	10개소	64개소

2. 최근 4년간(2011년 1월~2014년 6월) 전국 병성감정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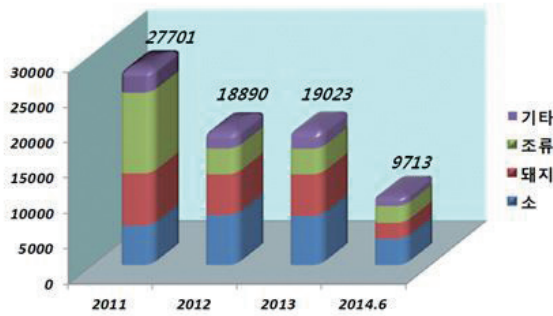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4년간 전국 병성감정 실적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된 자료를 중심으로 최근 4년간 전국 64개소 가축방역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실시한 병성감정 실적(질병진단 및 혈청검사)을 종합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 '11년 재난형질병 발생으로 의뢰건수 최고 기록

병성감정 의뢰건수는 2011년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동시 발생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 급격한 감소 이후 완만한보합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최근 4년간 축종별 의뢰건수를 보면 소가 23,3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 조류(가금 및 야생조류)순으로 확인되었다.

▶ 대학 및 민간병성감정기관 의뢰건수 전체 40% 근접

실시기관별 병성감정실적을 분석한 결과 민간병성감정기관(10개소)의 점유율이 19.4%로 가장 높았고 수의과대학(10개소)이 19.1%로 뒤를 이었다(그림 2. 참조). 특히 돼지의 경우는 전체 의뢰건수의 74%가 대학과 민간기관에 집중되었는

데, 이러한 현상은 이들 기관이 양돈장 질병위생 컨설팅 및 위탁관리에 주도적 참여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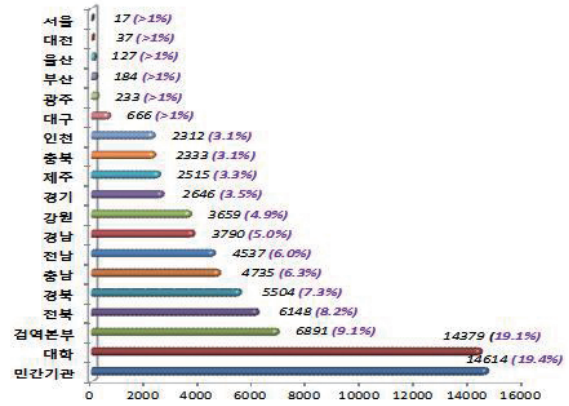


그림 2. 병성감정 실시기관별 의뢰건수

▶ 다두사육지역인 전북, 경북, 충남 순으로 많아

한편 개별 단위기관별로 살펴보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약 6,891건(9.1%)으로 처리실적이 가장 많았던 바, 이는 1·2차 진단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표준기관으로서 타기관으로 부터 의뢰되는 정밀검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가축 다두사육 지역일수록 병성감정 처리비중이 높아 전라북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순으로 의뢰건수가 많았다.

▶ 환절기인 4~6월에 가축질병 발생비율 높아

질병발생 비율은 동절기인 1,2월에 최소 수준이었고 3월을 기점으로 상승하여 환절기인 4,5월에 최대치를 기록한 뒤 이후 완만한 감소추세를 유지하다가 본격적으로 동절기가 시작되는 12월에 이르러 다시 최저수준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3 참조). ▽



그림 3. 월별 병성감정 실적 분포

(다음호에 계속)